



3면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유치, 정치적 이용 안돼”

# 전주매일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음 7월 26일) 제308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새만금 개발 도·시군 협치 본격화

민선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 개최  
‘특별자치제’ 추진 논의

“주민공감대 형성 중요  
군산·김제 등 3개 시군  
공동이익 실현 선행돼야”



2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왼쪽)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익현 부안군수, 정성주 김제시장,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민선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가 22일 도청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가 모여 새만금 발전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신규 국책사업 발굴과 새만금 당면 현안에 대한 협조와 더불어, 새만금 개발 및 광역화의 이정표가 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논의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3개 시군의 행정체계의 기본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며, 새만금권역과 관련한 공동사업을 지역 간 연대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특별자치제를 통해 새만금청, 행안부 등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공동의 사무를 수행하게 되면, 전북이 주

도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마련되고, 지역 주도의 새만금 실천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관영 도지사와 3개 시장·군수는 특별자치제는 무엇보다도 주민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며, 3개 시군의 공동 이익실현과 비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도에서는 여러 경로의 공감대 증진과 공동이익 실현을 위해 무엇이 필요 한지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사무 이관 시 예산이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추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는 행정통합이 아니고 새만금 권역의 공동이익과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향후 행정협의회라는 제도화된 협치 의 장(場)을 활용해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김경수 기자

##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일반계고로 전환 ‘재도약’

학생·교직원 투표서 찬성률 과반 이상  
학운위 심의도 통과…서 교육감 의지 빛나

군산상고등학교가 일반계고로 전환, 다시 한번 비상을 준비한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상고 인문계고 전환’이 이날 열린 군산상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상고는 2023년부터 일반계고로 전환, 신입생을 모집한다.

군산상고의 인문계고 전환은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7월 21일 군산상고를 방문해 교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직업계고의 어려운 점을 듣고 학교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후 지난 4일 군산여고 과밀학급 해소 방안 협의를 위해 열린 군산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서 군산상고 인문계고 전환을 권고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역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서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교육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지난 16일 재학생 대상 진행한

찬반투표에 전교생 307명 가운데 229명이 참여, 이중 197명(88%)이 인문계 전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2~16일까지 교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질문에 참여한 53명 중 28명(52.8%)의 인문계 전환을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군산상고 총동문회에서 인문계고 전환을 적극 지지했다. 총동문회 측은 사회환경과 교육여건 변화로 직업계고 학생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인문계고 전환을 통해 학교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서 교육감은 “군산지역 적정규모 학교 조성 정책과 노력의 과업을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아 준 군산상고의 모든 교육 주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군산상고의 인문계고 전환 이후에도 야구 명문고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또 지역 공교육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 도, 체육 기반시설 확충 국비 75억원 확보

국민체육센터 3곳·시설 개보수 14곳 등  
내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총 17곳 선정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문체부가 공모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총 17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75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북도는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인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2023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순창 유등면 부안 보안면, 부안 하서면 등 3개소가 선정돼 개소당 10억 원씩 총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국민체육센터는 배구, 농구, 탁구, 배

드민턴 등 생활체육시설로서 활용은 물론 주민 문화 활동 공간으로도 사용하는 문화·체육 복합 공간이다.

이로써 전북도는 올해 진행 중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16개소(사업비 888억원)과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 3개소(사업비 98억원)를 포함해 총 19개소 생활체육시설을 새롭게 구축하게 됐다.

전북도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 사업에도 국비 45억원을 확보했다. 준공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 체육시설 11개소와 안전 관련 긴급 개보수

체육시설 3개소 등 총 14개소를 보수한다. 이에 도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선 8기부터 코로나 일상(위드코로나시대)을 맞아 시군당 50억 원씩 총 국비 700억 원을 투입해 원주 과학산업단지 어린이 체육관, 장수 종합 실내체육관, 부안 테니스 돌구장 등 시설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도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일부터 어르신까지, 도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해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선도하고, 스포츠 활동 접근성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 1척 군산행

‘다량’ 선, 초르노모르스크항서 사랑무 1만4000t 실고 올 예정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 4척이 21일(현지시간) 추가로 수출길에 올랐다. 곡물류 총 3만3800t을 실고 한국과 튀르키예(터키)로 향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흑해 곡물 수출을 관리·감독하는 공동조정센터(JCC)는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선박 4척의 출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트위터에서 곡물 수출선 4척이 이날 우크라이나 항구를 떠났다고 알렸다.

이 중 1척은 한국으로 온다. ‘다량’ 선이 초르노모르스크항에서 사랑무 1만4,000t을 실고 군산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육수수 6만4,720t을 실은 선박 ‘오션 라이언’이 한국으로 출발한 바 있다. 나머지 3척은 튀르키예로 간다. 오데

사항에서 밀 1만t, 초르노모르스크항과 유즈니(피르메니)항에서 식물성 기름 각 5,000t, 4,300t을 실었다.

JCC는 또 이날 9척의 입항선과 1척의 출항선 등 총 10차례 검사를 실시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지난달 22일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재개를 합의했다. 4개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JCC를 이스탄불에 설치하고 곡물 수출선의 안전과 수출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홀루시 이카르 튀르키예 국방장관은 지난 1일 수출 재개 이후 총 53척의 선박이 곡물 수송을 위해 출항했으며 이 중 27척은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출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기준 약 68만t이 수출됐다. /뉴시스

전북환경청, 오늘 새만금호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

전북지방환경청은 23일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새만금호 육구 승수소에서 수질오염사고 대비 합동 방제 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을지연습과 연계하는 이번 방제 훈련은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 현장으로 이동 중이던 유류 운반 차량이 파손·전도돼 경유 약 2000l가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이뤄진다.

사고 발생에서 수습까지 과정을 상황 보고 및 전파, 현장 초동 조치, 현장 출동 및 사고대응, 후속 조치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해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형 방제선 등 중장비 진입이 곤란한 상황에서 고무보트 등의 소형 선박을 활용,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초점을 두고 훈련에 임할 방침이다.

윤은정 전북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 단장은 “이번 방제 훈련으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함께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www.culture-night@gunsan.kr  
GUNSAN CULTURE NIGHT

문화재 夜行

# 군산 문화제 야행

아경 夜景 (밤에 비치는 문화재)  
아로 夜路 (밤에 걷는 거리)  
아사 夜史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아화 夜話 (밤에 보는 그림)  
아숙 夜宿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아식 夜食 (밤에 즐기는 음식)  
아설 夜說 (밤에 감상하는 공연)  
아시 夜市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장터)

2022. 8. 25 [목] - 8. 27 [토]  
18:00-23:00 | 군산 내항 및 원도심 일원

주최: 군산시 군산시 문화예술과  
지원: 문화재청, 전라북도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